

[Lecture Note 01] 입시 문해력의 시작 : 티칭을 넘어 코칭으로

"변화하는 입시 환경, 강사의 경쟁력은 '정보력'과 '해석력'에서 시작된다."

Part 1. 왜 지금 '입시 컨설팅'인가? : 2028 대입 대전환과 교과 강사 역할의 변화

1. 교과 강사가 마주한 [기회 vs 위기] 매트릭스

구분	Opportunity (기회)	Threat (위기)
내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등급 대상자 확대(10%)상위권 진입 희망 학생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변별력 약화(치열한 경쟁 완화)내신 성적만으로 합격 보장 불가
수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수능 최저 기준 강화 가능성수능 학습 중요도 상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쉬운 수능 기조 예측변별력 하락 시 '자격 고사화' 우려
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정성평가 중요도 급상승교과 강사의 개입 영향력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단순 수치(등급) 상승의 무력화정시에서도 내신/서류 반영 도입

□ 핵심 패러다임의 변화

- ▶ 수시 : "지원 가능 대학은 [내신]이 결정하고, 최종 합격은 [정성평가]가 결정한다."
- ▶ 정시 : "지원 가능 대학은 [수능 점수]가 결정하고, 최종 합격은 [정성평가]가 결정한다."

2. 새로운 교과 강사의 포지셔닝

[Old Model] 점수 관리 전문가

- 1, 2, 3등급 만들기 마케팅의 한계 : '2등급 만들기'는 이제 매력적인 제안이 되지 못함
- 문제 풀이 및 내신 관리 : 내신의 격차는 줄고, 정성평가의 영향력은 확대

[New Model] 합격 설계자 (Admission Architect)

- 관리 가능 : 정성평가(세특) 관리 가능한 강사
- 판단 가능 : 과목 세특의 정성평가 수준을 판단하는 안목

[그 외]

- 학부모의 불안도 증가

매번 큰 비용을 대고 컨설팅을 받기 어려움 : 내신 학원 선생님이 기본적인 질문을 해소해주고, 최소한의 판단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?

Part 2. '점수 관리 전문가'에서 '합격 설계자'로

1. Teaching vs Coaching 역할 정의

구분	Teaching (티칭)	Coaching (코칭)
본질	교과 지식 전달 (기본)	입시 전략 및 기록 관리 (핵심)
활동	수업, 문제 풀이, 성적 향상	세특 관리
목표	등급 상승 (1~2등급 확보)	합격 확보 (정성평가 우위 선점)
최소 역량	교과목 전문 지식	생기부의 유/불리 판단 능력

2. 2028 대입 개편의 방향성

- 다음 표는 주요 대학(서울대, 경희대, 건국대)의 2028학년도 전형 계획안
- '교과위주 전형'과 '정시'에도 정성평가(서류)가 포함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.
- 서울 중위권 대학 이상은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측

대학	교과위주 전형 (내신형)	학생부 종합전형 (서류형)	정시 (수능형)
서울대	없음	서류 + 면접	수능 60% + 정성평가 40%
경희대	교과 70% + 정성평가 30%	서류형 / 면접형	수능 100% (30% 내외) 수능 90% + 내신·출결
건국대	교과 70% + 정성평가 30%	서류 + 면접	수능 80% + 정성평가 20%

- Key Point 1: 경희대, 건국대 등 주요 대학 교과전형에 서류(정성)평가 30% 반영
- Key Point 2: 서울대, 건국대 등 정시에서도 정성평가 20~40% 도입
- Key Point 3: 서울대 수시 지균 수능 최저 폐지, 건국대 통합 논술 실시 등 변화 발생

3. 교과 강사의 '새로운 전문성' 공식

[내신 관리] + [세특 지도] + [정성평가 유불리 판단] + = [경쟁력 있는 전문가]

- 1단계: 학생부 종합전형 마스터가 아니어도 괜찮음
- 2단계: '교과 전형 전문가' 로 포지셔닝 (정량+정성 복합 평가 대응)
- 3단계: 생기부가 Plus(+)인지 Minus(-)인지, Zero(0) 판단하는 '진단'능력 정도만으로도 충분.

Part 3. Why Now? (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)

[5등급제 과도기의 혼란 = 전문가의 기회]

1. **선점 효과** : 오랫동안 데이터화 되어 있는 9등급제 시스템에서 입시 분석 감각을 익혀야 함
2. **적응력** : 현재의 '서류 평가' 시스템 이해해야 5등급제 변화에 대응 가능
3. **시장 수요** :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입시 환경에서 '가이드'의 필요성 증가.

"우선 **교과 전형 전문가**를 목표로 시작하세요.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의 가치는 충분히 달라집니다."